

하나님의 섭리

2018년 5월 27일 주일설교

“거룩하고 신비로운 땅”(A Holy and Wonderful Land)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조성된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도 했던 우리도 역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코너에 몰려 있다 해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독립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인정해 주면서 단계적으로 일을 풀어 갔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가 크게 실망하고 또한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우리의 기대감이 너무 부풀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지켜 본 사람들은 대부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진척되는 화해 분위기로 인해 놀랐습니다. 너무도 급격한 변화가 너무도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랬기에 화해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근거 없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빅딜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돌아 보면, 그것은 애시당초 가당치 않은 기대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깜빡 했던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구 상에 있는 국가 원수들 중에 가장 예측할 수 없고 가장 단순하며 또한 가장 복잡한 인물입니다. 또한 같은 사태를 두고 두 나라가 이면에서 두고 있는 셈은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많은 논의와 협상과 인내와 시간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노와 실망감을 다독이면서 다시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에 이르려면 이번과 같은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측 불능의 두 지도자에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실수와 악행까지도 묶어서 선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두 지도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읽은 사도행전 5장의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존경 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일 때 그가 중재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그냥 두면 소멸될 것입니다." 남북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만일 지속 가능한 평화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라면, 모든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일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팔짱 끼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소망하고 또한 그 최선을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는 동시에 나의 뜻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면 안 돼!"라는 아집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고개 숙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기도합니다.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통179)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돌아가며 읽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핍니다.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말씀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만들어 주신 변화를 생각해 보시고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매일 성령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성령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만들어 내시는 변화를 구하십시오.
중보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중보하십시오.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통169)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전교우 수양회 등록 마감일이 6월 10일입니다. 서둘러 등록하십시오 은혜와 사귄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우 수양회

강사	한어 성인: 이창민 목사 (LA 연합감리교회 담임) 영어 회중: Joshua KIM (아프리카 기니 선교사)
장소	매릴랜드 스카이크로프트 수양관
기간	2018년 6월 29일(금)-7월 1일(주일)
등록비	어른 \$80, 청소년/어린이 \$50, 유아 무료 문의: 유주현 교우(571-437-4144, chrisyoo69@gmail.com)
주제	삶, 하나님의 황홀한 초대 금요일 저녁 ----- '마중물 인생' 토요일 아침 ----- '디딤돌 인생' 토요일 저녁 ----- '무지개 인생' 주일 예배 ----- '구겨진 인생'



수요예배

오후 8시 / 본당



찬양과 기도 유성현 목사
말씀 로마서 강해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다같이

1. '전교인 신약일독' 이번 주 진도는 **사도행전 7-12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신약일독 진도에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18.com**에 접속하시면 매일 읽을 본문에 대한 간략한 묵상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오늘 예배 후에 목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217호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양회 준비팀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209호실에서 모입니다.
3. 전교우 수양회 등록을 6월 10일에 마감합니다. 수양회 준비팀을 위해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4. 6월 2일에 Centreville UMC에서 선교를 위한 Yard Sale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ES에서도 멕시코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해 참여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Centreville UMC에서 친교 음식을 제공합니다. 예배당 수리를 위해 헌금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6. 지난 월요일에 모였던 임원회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 가서 교회에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6월 9일 오후 5시에 주일학교 Bridging Ceremony가 있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을 위한 축하 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6월 3일 오후 5시에 애쉬번 한인교회(강현식 목사 담임)의 5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9. 오늘은 도서부가 클로즈합니다.
10. 새가족되심을 환영합니다. 정영준/양영자(Centreville, VA)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쿠바(전구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경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파송받은 유성현/강은주 목사님 가정을 위해
- 전교우 수양회와 이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주일예배

-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제자반

- **4050 남성제자반**(인도: 김영봉)
화요일 오후 7:30-9:00/ 방학
- **여성성경필사나눔반**(인도: 도현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방학
- **4주 제자학교**
토요일/ 9월 개강 예정
- **에바다 성경모임**(인도: 이수양)
토요일 오후 6시-9시/ 217호

5, 6월 신약일독진도 (www.koinonia2018.com에서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월)	29일(화)	30일(수)	31일(목)	1일(금)	2일(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2장

주일 섬김과 봉사

- 예배: 공효선/김인애/김정규
주준호/주규리/이성래
- 바나바: 조관식/김영애/오하나/
김희옥/이수진
- 멀티: 이백호/윤석호/김애린/
정도균/이유경/이애나
- 주차: 장호범/박윤빈/김성식
- 도서: 허옥신/김용규
- 성찬식: 류수연

5월 봉사 안내

- 안내와헌금: 오늘(5/27): 주희영/송검숙
다음주(6/3): 한의홍/김용규
- 6월 3일: 회중기도: 조상훈
성경봉독: 목수정
- 주일 친교: 오늘(5/27): 등대숙
다음주(6/3): 참사랑숙

(5월20일)

전교인 연합예배	247		
		주일헌금	\$287
		주정/월정	\$3,920
		십일조	\$5,970
주일예배 출석 합계	247	선교헌금	\$150
		감사헌금	\$670
수요일예배(5/23)	37	사랑헌금/기타	\$100
주간예배 출석 합계:	284	합계:	\$11,097

2018년 5월 27일 | 성령강림후 첫 번째 주일

본당 / 2:00 pm

사회: 유성현 목사

피아노: 이애령/ 오르간: 김성은

-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_____ 점화자
- 경배 찬송 _____ “하늘에 계신” 635장 _____ 다같이
Hymn of Invocation _____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 예배에의 부름 _____ 다같이
Call to Worship
- 개회 찬송 _____ “이 기쁜 소식을” 185장(통179) _____ 다같이
Hymn of Praise _____ Oh, spread the tidings 'round
- 신앙 고백 _____ 니케아신경 _____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 회중 기도 _____ 이환섭
Congregational Prayer
- 성경 봉독 _____ 사도행전 2장 43-47절 _____ 황미진
Scripture Reading _____ Acts 2:43-47
- 찬양 _____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_____ 성가대
Anthem
- 설교 _____ “**거룩하고 신비로운 땅**” _____ 김영봉 목사
Sermon _____ **A Holy and Wonderful Land**
- 응답의 기도 _____ 다같이
Prayer of Reflection
- 송영과 봉헌 _____ “이 천지간 만물들이” 5장(통3) _____ 다같이
Doxology & Offering _____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 목회 기도 _____ 유성현 목사
Pastoral Prayer
- 결단의 찬양 _____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통169) _____ 다같이
Hymn of Commitment _____ Joys are flowing like a river
- 축도 _____ 김영봉 목사
Benediction
- 인사와 광고 _____ 말은이
Greeting & Announcements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